

플리잉 클랑클랑

글, 편집: 제민, 지환



*플리잉 클랑클랑 : 비가 많이 와

1화.CDP

2화.YDP

3화.아띠데이

4화.350ppm

5화.중간평가

6화.활동^c

7화.가정의 달

에세이

💧 프록로그. 밖에 비온다 주룩주룩

5월, 우리의 활동이 반이나 지났음을 알려주는 단비가
캄보디아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시작했다.



좀처럼 오지 않아 그토록 기다려 왔던 비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절대 입지 않을 것
같았던 아씨 바람
막이를 꺼냈고,



운동화는 이제 더
이상 신지 않게
되었다.



투투도 우리를 따라 우비를 입었고,



미의 플리응: 불빛을 따라오는 벌레

저녁마다 미의 플리응이 찾아와
우리를 괴롭혔다.

카리따스 사무실에는 낮에도

모기가 득실득실 해지고,



비가 수시로 오는 탓에

바깥에 벌레를 너는 일이 줄어들었다.

맨날 덥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던 다라(지환)는
비가 온 후 시원해져 좀 살만하다고 했고,

매일 저녁 평상에서 영화를 보고, 잠도 자던
티다(다희)는 모기가 많아(모기에 가장 잘 물림)
이제 평상에 누워 있는 날이 적어졌고,

더위는 못 참고 바글바글한 벌레와 쥐를 싫어하는
니엑(제민)은 시원해져서 좋은 반면,
벌레와 쥐가 많아져 괴로워 하고,

사오피아(주혜)는 선풍기 앞을 사수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더워서 잠을 깨었던
전과 다르게 새벽에 서늘한 기운에 깨서
이불을 덮기도 했다.

💧 제1화. CDP



이번 달 CDP (지역 사회 개발 활동)로 캄보디아 NGO 단체들이 함께 진행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교육에 농부님들과 CDP유스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PGS: 캄보디아의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부님들을 위해 시행하는 유기농 작물재배 및 판매보조를 담당하는 사업



PGS에 관한 설명을 품(마을)의 농부님들, CDP유스들과 함께 듣고 '왜 PGS가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님들에게 필요한지'와 'PGS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등에 대해 다같이 조를 나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PGS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의
대부분이 영어가
아닌 크마에어로
이루어져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PGS를 설명하는 곳에는 농부님들의 열정이 넘쳤다.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님들은 생산되는 농작물의 양이
부족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PGS를 통해 이것
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PGS에 대한 설명 및 토론회가 끝난 후 참여인원 모두 PGS가 시행될 밭에 가서 어떻게 시행될 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캄보디아는 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PGS에 거는 기대가 크고, 농부님들 또한 많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PGS에 참여하고 있었다.

💧 PGD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

토론 같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방식💧

하루에 너무 긴 시간 동안의

💧 교육으로 집중하기 힘들었음

크리에어로 진행되어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체2화. YDP



☹영어 팝송 타임

이번 달 팝송은 'Pretty boy'.
다 같이 노래를 듣고 함께 따라 부르며 간단한 문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는 영어 단어를 설명
해주고, 유스들은 크메르어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었다.
서로가 공유하며, 서로가 배우가는 시간이었다.



영어 시간 대부분은 팝송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고,
나머지 시간에는 함께 밖에서 제기차기 같은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통해 서로가 노래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는 캄보디아 노래를 들었고, 우리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 서로의 언어를 함께 나누는 시간

💧 함께 즐기고, 함께 하는 시간

점점 사라지는 유스들 💧

날씨로 인한 수업 참여 부족 💧

💧 수업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 왓프놈, 유스, 성공적

무비타임을 위한 DVD구입 차 프놈펜의
큰 불교 사원인 왓프놈을 유스들과 함께 놀러 갔다.



까리따스 직원이자 친구인 '쌈반', 유스들과 함께 프놈
펜에 나가서 왓프놈을 들린 후 메콩강변을 걸으며 추억을
쌌다.



유스들과 함께한 시간이 부족한 것이 고민이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비타임 준비 겸 프놈펜 나
들이를 준비했었는데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

유스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었고, 함께 온 '쌈반' 과도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프놈펜 왕궁 앞,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모두 흠뻑 젖은 생쥐 꼴이 되어버렸다.
이후에 다 함께 모든 비를 몸으로 다 받으며 돌아다녔지만,
오히려 즐거웠던 이 날을 계속 기억할 것 같다.



💧 유스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던 시간

더 많은 유스들과의 시간 필요성💧

💧 프놈펜에 안가 봤던 아름다운

장소들을 알게 됨

유스들과 같이 현지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제3회. 아띠데이



쿠킹 타임 ☹

4월 쿠킹 타임에 야채 꼬지 산적을 만드는 족족 다 먹
어 못 먹는 사람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먹
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했다.

이연복 셰프만큼 칼질을 잘하는 유스 '쓰라이네악'이 먹
고 싶다고 한 '짜장면'에 현실상황을 반영하여 메뉴를
선택했다.



25~30명이 먹기 위해
사람 몸통만한 냄비에다
짜장 30인분을 시작했다.

숯불에 구이가 아닌 요리
한 것은 처음. 숯불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티다
(다희)와 니엑(제민)이
눈물을 흘렸다.



짜장.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번 달 메뉴, 짜장!





💧 요리시간 고려한 메뉴선정

💧 요리공간 협소->공간개선 필요

함께 할 수 있는 요리 💧

💧 요리에 대한 설명 부족

많은 유스들의 적극적인 참여 💧

무비 타임 ☹



유스들의 영화 취향을 모르기 때문에 프놈펜

DVD가게에 유스들과 함께 나가 영화를 골랐다.

이번 달 무비타임 상영작은 '정글북'

한국에서는 개봉도 안 한 영화들이 캄보디아에서는

이미 DVD가게에 나와있었다.



비록 크마에어로 된 영화를 구하진 못했지만, 유스들이 정말 재미있게 봐주셔서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영화를 볼 때 조용히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달리 정말 시끌벅적하게 영화를 관람하였다.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소년이 도망치는 모습을 정말 순수하게 보는 유스들이 보기 좋았다.



💧 크마에어 자막의 필요성

💧 저급 화질의 DVD -> 고품질의 영상 필요

자막이 없음에도 유스들의 유쾌한 참여 💧

💧 간식 준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

제4화. 350PPM💧



국내 훈련할 때 너무 고전한 350PPM 캠페인...
6월에 진행할 캠페인에 앞서 캠페인을 유스들과 함께 진행하기 위해 그들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함께 했다. 높은 언어의 장벽과 국내 훈련 때 생겨버린 약간의 공포감 때문에 걱정이로 가득한 시작을 했지만, 유스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병 탄'의 도움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 성공적인 1차 350PPM 토의시간을 무사히 마쳤다.



실생활에서 가능한 350PPM 실천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아띠 텀블러'와 '에코백' 을 유스들에게
예시로 보여줬다.



1. 기후변화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2.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문제와 해결방안
 3. 캄보디아 내에서의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
 4. 캄보디아 내의 기후변화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 네가지 주제를 조를 나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350PPM 실천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었던 탓에 생활 속 실천방안 보다는 광범위한 실천방안이 많이 제시되어 아쉬웠다



진행하기로 한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함💧

💧 크마에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각적 자료활용의 극대화 필요💧

💧 캠페인 전 스텝과의 소통의 필요성

350PPM 실천 방안에 대한 설명 부족💧

💧 우리끼리가 아닌 유스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 제5회. 중간평가



5월 30일 밤 중간평가를 위해 한국에서 많은분들이 오셨다. 생각보다 비행기가 빨리 와서 제대로 된 마중을 나가진 못했지만, 무사히 감사님들과 YMCA 이동식국장님, 국민은행 김슬기 대리님을 만났다.

솔직히 그렇게 반가울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너무 반가웠다.

늦게 오실 줄 알고, 햄버거 먹고 있었던 것은 비밀...



수원 Y의 막내 '여세린' 감사님



목재이 할매 '양동화' 감사님

중간평가
보고회 도중
정전이 되
었다.



중간 평가단
과 까리따스
간에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
다.





캄보디아 KB국민은행방문. 국민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온아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신 법인장님과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주간평가 기간에 품(마을)에 들러 앞으로 진행될
CDP활동에 대해 전달 받았다.



건기가 길어져 실외 CDP활동이 없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
간에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농장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농부님들을 위해 라온아띠 이름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남은 기간 농부님들과 함께 일을 할 '라온아띠 밥'.

가뭄으로 그동안 일을 못해서 아쉬웠고, 농부님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우기가 시작됨으로써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중가 평가단과 깐달팀 + 병 어덤 까지 뽀사트마이
(프놈펜 중앙시장)에서 동화 감사님의 추천으로 기념
팔찌를 맞췄다.

병어덤은 계속 싫다고 잡아떼더니 이 보고서를 제출하
는 6월 초까지도 계속 팔찌를 하고 다니고 있다. 막상 우
리 팀에서는 아무도 안하고 있는데...

💧 지난 3개월을 돌아보고

남은 2개월을 생각할 수 있던 시간

팀의 속사정을 전부 털어 놓았던 시간 💧

💧 까리따스와의 소통의 필요성 절감

① 제6회. 활동C



우리는 CDP, YDP, 아띠데이 외에도 다른 여러 활동들을
진행했다.

대규모 의류 하청 공장을 견학하기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부족했던 크마에어 수업도 듣고,
김밥을 만들어 캐리커스 직원, 유스들과 나눠먹기도 했다.

💧 그린 프로젝트 인 스쿨



따그마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방치된 장소를
학생들과 함께 화단을 가꾸는 프로젝트.
이번 달에 우리는 초등학교를 가서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화단을 가꿀 장소에 가보았다.



가원어패럴 공장견학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따끈마에에 있는
가원어패럴 의류하청공장을 견학했다.

가원어패럴 공장은 세계적인 의류업체인 'H&M'과
계약을 체결하여 H&M의 의류를 제작하고 있었다.

공장견학을 통해 의류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30회 이상의
여러 공정을 거치고, 같은 의류라도 전달하는 나라에 따라
가격부터 보관 방법까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으리는 피어싸 크마에



*으리는 피어싸 크마에: 크마에어를 배우다

우리팀의 부족한 크마에어를 채우기 위해, YDP담당 스탭 '병탄'이 나섰다.

책을 보고 주입식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크마에어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평소에 궁금했던 단어들과 표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툭툭 기사에게 길을 알려줄 때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좀 더 현지인처럼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

남쪽 찜닭 머뭇 꼬레, 김밥 :)



7월에 진행할 마지막 쿠킹타임 여행 연습 차 까리따스
사람들과 한국음식을 함께 먹기로 했다.

'김밥'을 메뉴로 선정하여 만들어 나눠먹었다. 유스들과 직
원, 우리도 맛있게 먹었지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문
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남 짜란 머ஹ 꼬레, 김밥 :)"

"김밥 칭안 떼!"

*남: 먹다 짜란: 많이 머ஹ: 음식 칭안: 맛있다



밥이 질어 완벽한 김밥을 만들지 못했지만, 짜리따스
직원들과 유스들이 맛있게 먹어주어 기분이 좋았다.

☹ 제기화.가정의 달



기념일이 많은 5월, 우리는 따끈따끈 가족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어린이날을 맞아, 동네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고,
병어댐의 부인 병레아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이여이께 선물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니엑(제민)의 생일을 성대하게 치렀다.

어린이 날



아이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우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맛있는 과자를 나눠 먹고, 함께 비누방울을 불며 뛰놀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과 함께 먹기 위해 마트에 들러 여러 과자를 샀지만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 못한 탓에 아이들보다 우리들이 과자를 더 많이 먹는 사태가 발생해 버렸다 ^^



반면 비누방울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직접 자기가 부는 것은 잘 못했지만, 우리가 불어주는
비누방울을 보며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여웠고
흐뭇했다. 데헛><



👉 벵 레아 생일



"생일 축하해요 레아"

5월 7일은 벵 어댐의 부인인 벵 레아의 생일이였다.
우리의 가장 친한 이웃이자 따끈돌가족인 레아의 생일
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두아이의 엄마로 여자보다 엄마로서의 삶에 치중하고
있는 벵 레아를 위해, 예뻐지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생각
하며 머리핀 선물을 준비해 깜짝 생일 축하를 해주었다.

이 날 이후 벵 어댐이 우리에게 더 잘해주었다...

어버이 날



*어꾼: 감사합니다.

"어꾼 썸란 이여이"

항상 우리를 챙겨주시는 이여이.

한국의 어버이 날을 맞아 이여이께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여이가 매일 입고 다니시는 캄보디아 치마를 선물해 드렸다.

이여이께서는 너무 좋아하시며, 치마를 자랑하셨고 우리의 마음도 따듯해졌다.

👉 니엑 (제민) 생일



5월 28일에는 내 (제민) 생일이 있었다.

캄보디아 오기 전 한국에서부터 생일을 성대하게
챙겨주기로 팀 규칙을 정했었기에 서프라이즈는 커녕
내가 오히려 독촉을 하고 요구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루 종일 북어 있는 터라 깜짝 놀라킬 수 없는 여건
임에도 몰래몰래 케이크와 동영상을 준비해 준 우리 팀원
들이 너무 고맙고, 그 언제보다 성대하게 이루어진 생일
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티다와 다
라가 숯불에
고기를 구우며
고생했고,

따끈따끈 가축들
과 모여 함
께 한국식
BBQ파티를
즐겼다.



빙 레아가 과
일을 이용해 케
이크를 만들어 주
어서 감동이였다.





따끈따끈 가족분들이 선물로 캄보디아 국가대표 유니폼을 선물해 주셨는데, 김홍이 자기 것이라며 선물을 주지 않으려 울어서 더 재미있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에필로그. 사람냄새

뜻잇 크니어

*뜻잇 크니어: 뜻같다



♪ 무엇이 무엇이 뜻같을까?

병어덤과 그의 첫째딸 비싸이가 뜻같지요.



♪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까?
김홍 아빠와 김홍, 김향이 똑같지요.



♪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까?
병 탄과 다라성이 똑같지요.



♪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까?
속치웃 미술 선생님과 아들이 똑같지요~

💧아띠들의 뿌어막



니억(제민)의 뿌어막

이름: 바바나

애칭: 바바나나

나이: 9

'아띠들을 너무나 좋아

하시는 품의 여으옹 이

여이의 손자'

붙임성이 좋아 첫만남부터 친해짐.

슬리퍼를 차서 땅따먹기 비슷한 캄보디아 놀이를

하는 것이 주된 일과이고 더욱 때는 옷을 입은 채 샤워를
하곤 한다.

바바나라고 계속해서 불렀더니 자기인줄 이제는
알아듣고 대답해주고 있다.

마을 아이가 아니라 품에 살고 있는 친구라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 아쉽다.



이번 달 티다(다희)의 뿌어막(벵레아)

지금 내 나이에 결혼을 한 레아언니.

나에게도 결혼을 안 하냐며 물었던 레아언니.

우리 마을 가장 예쁜 아이를 낳은 레아언니.

(아직 이렇게 예쁜 아이는 못 봄.)

지금은 딸 두 명을 낳고, 아직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

그녀는 매일 찾아가는 우리를 항상 웃으며 반겨준다.

그리고 항상 맛있는 미차(볶음라면)와 뿌코핫을 만들어 준다.

남은 시간,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보내고싶다.



다라(지환)의 뿌어막 '쓰라이 닉'
20살임.(나보다 어림)
맨날 장난 쳐도 받아주고 같이 잘 노.
자주 같이 밥 먹는 점심파트 중 한 명.
자기 얼굴보다 큰 음료수를 항상 한 컵(?)씩 꼭 먹음.
맨날 나보고 쪼록(돼지)라고 놀림...
얘는 완전 멀치.



사오피아(주혜)의 친구 '상희응'을 소개합니다.

18살의 꽃다운 울 상희응

고양이를 모으는 고양이 사랑하는 여자

유스들과 함께 갈 때면 의사소통도 도와주고 아띠들을

세심한 눈으로 챙겨주는 친절하 그녀,

영어 타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마운 친구이기도

하다. 함께 와프놈에 가던 날,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다.

같이 비도 맞으면서 굶은 길이지만 함께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다.

함께 있으면 나보다 어리지만 마음이 든든해 지는 친구다.

이여이와 망고잼공장



*망고잼: 망고를 끓여 넓게 펴 말린 것

망고가 무르익어 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질 무렵,
이여이께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티다와 다라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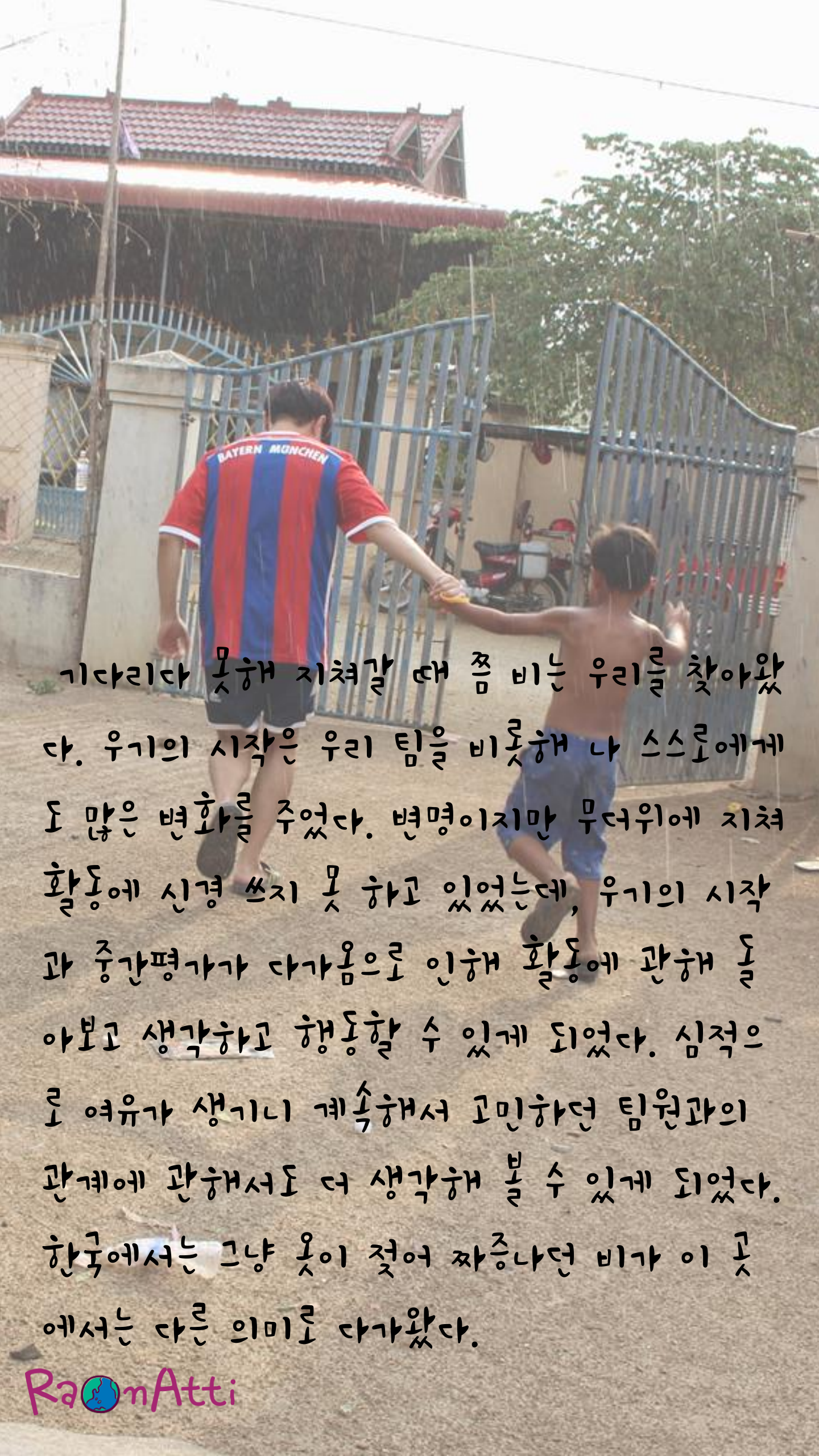
저녁에는 망고를 까고, 아침마다 망고를 끓여 말리는
일을 몇 일 동안 새벽부터 끊임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입맛에 맞지 않아 우리가 잘 먹지 않자
이여이께서 매우 실망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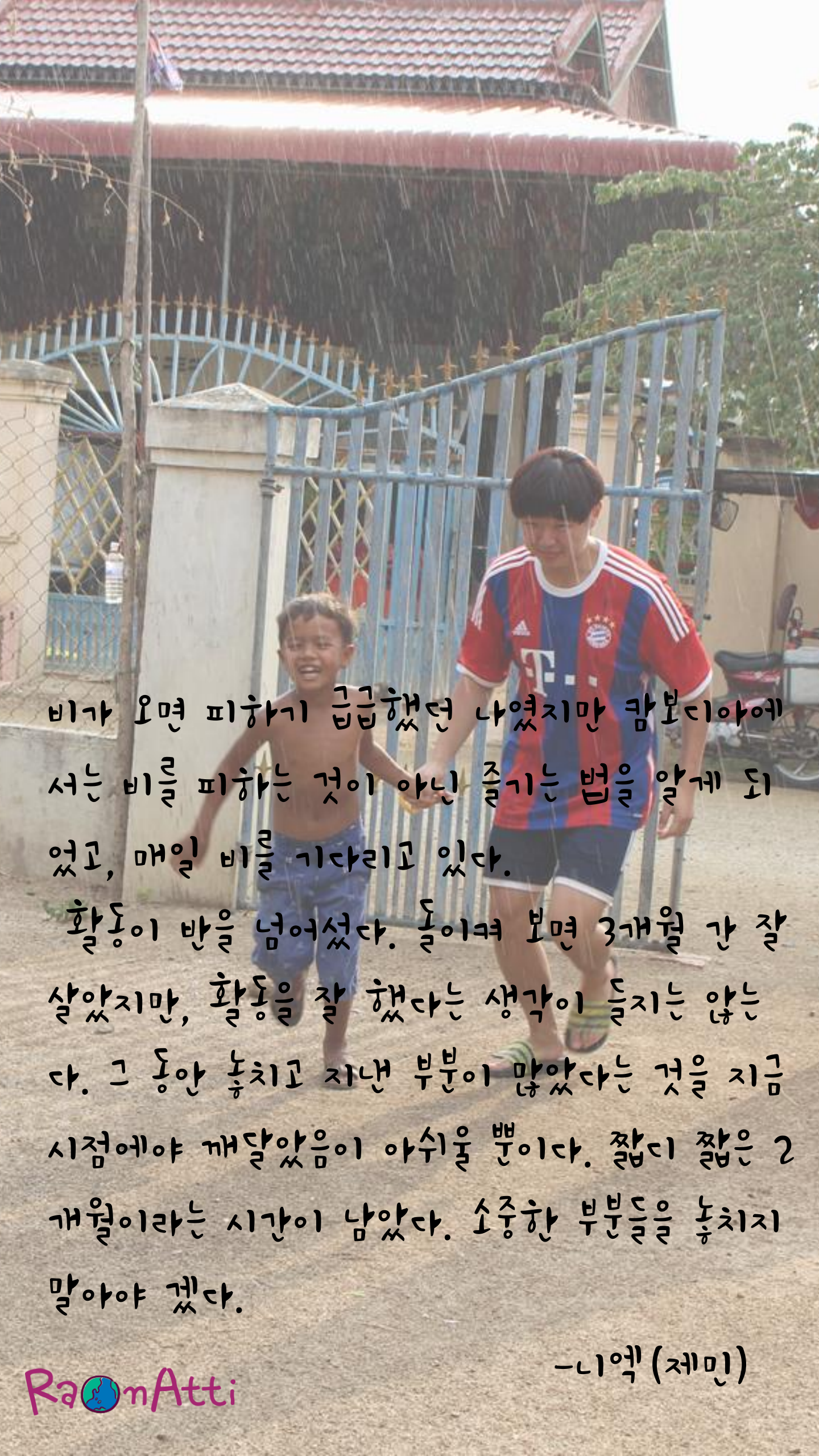


에세이



A man wearing a red and blue Bayern Munich soccer jersey is walking away from the camera, holding the hand of a young, shirtless boy. They are walking through a large, blue metal gate.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building with a red-tiled roof and some trees. The scene is outdoors and appears to be in a residential or institutional setting.

기다리다 못해 지쳐갈 때 쫓비는 우리를 찾아왔다. 우기의 시작은 우리 팀을 비롯해서 나 스스로에게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변명이지만 무더위에 지쳐 활동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기의 시작과 중간평가가 다가옴으로 인해 활동에 관해 돌아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계속해서 고민하던 팀원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그냥 옷이 젖어 짜증나던 비가 이곳에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A photograph showing a man and a young boy walking together in the rain. The man is wearing a red and blue soccer jersey with white stripes on the sleeves and dark shorts. The boy is shirtless and wearing blue shorts. They are walking on a dirt path in front of a blue metal gate.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house with a red tiled roof and some trees. The rain is falling heavily, creating a blurred effect in the air.

비가 오면 피하기 급급했던 나였지만 캄보디아에
서는 비를 피하는 것이 아닌 즐기는 법을 알게 되
었고, 매일 비를 기다리고 있다.

활동이 반을 넘어섰다. 돌이켜 보면 3개월 간 잘
살았지만, 활동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느
다. 그 동안 놓치고 지낸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
시점에야 깨달았음이 아쉬울 뿐이다. 짧디 짧은 2
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소중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니엑(제민)

내 생애 가장 긴 여름3

2달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지나갔다. 가끔은 신기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사람이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보이는 것이... 벌레가 많고, 자는 것이 불편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막상 또 집에 갈 생각하면 슬픔부터 찾아온다. 벌써 익숙함에 속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너무나 익숙해서 익숙한 것에 감사함을 잠시 잊은 것 같다. 함께 한다는 것, 참 따듯한 말이다. 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꼭 몸이 아님을 깨달은 한 달이었다. 함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 함께해서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으로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다.

2달동안 지금까지 보낸 3개월 보다 더 소중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싶다. 후회하지 않게...

3달이 지난 지금 기대했던, 기다리던 중간평가도 끝났고 이곳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중간평가를 하게 되면서 그 동안의 활동과 생활을 돌아보며 새로 다짐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곳에서 배워왔던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고민해 왔었는데 지나고 보니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듯하다.

이전에 지내오던 경험들이 무색하게 라온아띠를 하면서 이 공동체와 이 경험들이 나에게 처음인데 나는 너무 설불리 이전 경험에 빚대어서 생각해 오는 오류를 범했다.

나의 오류에 부족한 나는 본의 아니게 다른 팀원들에게 많은 변명을 하고 있었다.

더 노력하지 못했고, 나의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인 이해와 배려라는 이름의 거짓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다.

나는 다 알 수 없는데도 너무 모든 것을 알려고 했고, 다 알려 줄 수 없는 나를 너무 나타내려고 했었다.

적정선 조절을 실패했다. 많이 서툴렀다.

생각이 많은 나는 많은 것에 의미를 두었고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도 의미를 두고,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고민의 무게는 좀 더 크고 견고했다.

생각을 하고 정리하기까지, 확신을 가질 때까지 나는 시간이 걸렸다. 큰 주으면서 나와 다른 그들은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다.

나와 다른 생각, 기호, 의지, 표현, 행동, 말... 때론 낯설고 불편했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기에 도망칠 곳이 없었다.

대화하며 풀어나가려 노력하던 우리는 제자리 걸음으로 많이 지쳤다.

너무 쓰라린 순간들이다.

애증이 범벅 되어서 나의 마음은 요동치지만 들여다 보면 사랑스러운 구석이 많은 울 팀원들, 그래도 매 순간마다 배려하고 노력하며 나를 생각해 주는

팀원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캠팀에게 고마운 마음은 항상 변함없다.

이 노력들이 그냥 지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나는 더 애써야 한다.

지금은 성장 촉진제를 맡고 있다. 꽤 힘겨운 시간이지만 지나고 보면 성장할 것이란 생각에 나중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려 한다.

쑥 씨바이 떼? (행복하니?) 잘 지내지? 잘 하고 있니?

이 곳에 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물론 이 질문들은 이곳에 온 후에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가장 많이 한 질문들이다.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고, 성장통을 겪으며 유여곡절들을 넘기고 있지만 잘 지내가고 있다.

힘든 순간, 한계의 상황마다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의문이 스치지만 ^^ 그토록 원했고 선택했으며 감사하게도 기회가 주어졌음에 '책임 져야지.'라는 생각을 한다.

쉽지 않지만 분명히 많이 배우고 있고 어디서도 알지 못했던 나를 알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대답 할 수 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배워갑니다.

떼의 tng아이 캉 목평다예, 쑥쑥 (앞으로의 나날도 파이팅!)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풍경들을 만약 1년 전의 내가 봤다면 어땠을까. 열악, 동정, 안쓰러움, 도와주고 싶음, 등등 부정적인 용어들로 가득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캄보디아에 온 이후로 내가 살고 있는 풍경들이 열악하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아니, 딱 하나 우리 집 화장실 실 변기 빼고.

5월 30일 한국에서 중간 평가단이 왔다. 그 때 국민은행 대표로 오신 대리님과 이야기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계속 '열악'한 곳에서 정말 힘들겠다고, 고생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열악'한 집에서 자고 '열악'한 환경에서 CDP활동을 하는 줄 몰랐다고... 라온아띠 국내 훈련을 받기 전의 나라면 대리님이랑 똑 같은 생각을 가졌었다. 그냥 고생 좀 해보려고, 한국에서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싶어서 지원한 것도 좀 있었다. 자원활동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줄 알고 라온아띠를 지원했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러 가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서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헛갈릴 것 같다. CDP를 하는 품에 사는, 따끄 돌(지금 내가 사는)에 사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것 보단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전에 나의 가치는 거의 '경제적'인 것들 이었다. 한 국가를 바라 볼 때도 사람들의 삶을 볼 때 도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었다. 돈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었다. 거의 어릴 때부터 21년 간 이런 생각을 가졌던 나의 사고 방식이 단 5개월 정도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라온아띠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 솔직히 아직도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다. 그래도 라온아띠를 통해 자주 들었던, 하지만 와닿지는 않았던 '또 다른 가치'에 대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인생에서, 21살이라는 시점에 나에게 또 다른 관점을 선물해준 라온아띠에 감사하고있다.

-다라(지환)



5월호 마침💧💧